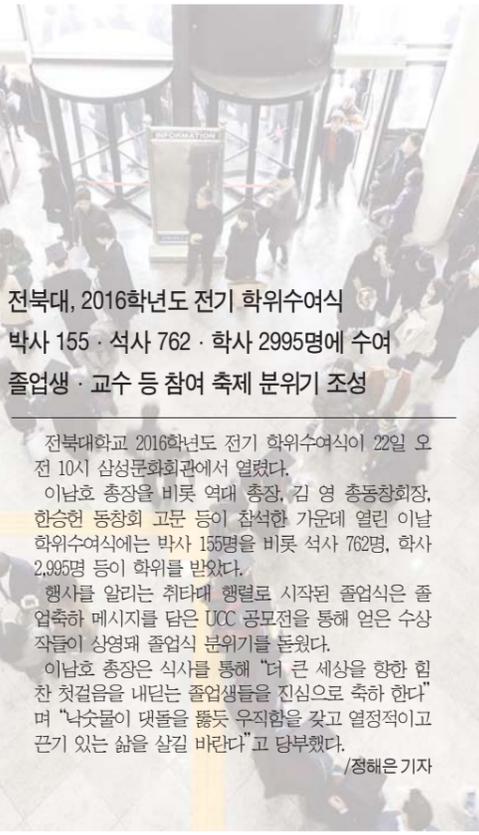




## “이제 졸업... 더 큰 세상에 맞서자”



전북대,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박사 155 · 석사 762 · 학사 2995명에 수여  
졸업생 · 교수 등 참여 축제 분위기 조성

전북대학교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남호 총장을 비롯 역대 총장, 김 영 총동창회장, 한승헌 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155명을 비롯 석사 762명, 학사 2,995명 등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를 알리는 취타대 행렬로 시작된 졸업식은 졸업 축하 메시지를 담은 UCC 공모전을 통해 얻은 수상 작품이 상영돼 졸업식 분위기를 돋웠다. 이남호 총장은 식사를 통해 “더 큰 세상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나눔을 베풀고 이웃을 돕는 우직함을 갖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 김제 새마을회, 김제 소상공인협회와 간담회

김제시 새마을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회장 강인식), 새마을부녀회(회장 문순자), 새마을문고김제시지부(회장 채우영) 등 회원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활기차고 활기넘치는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한 김제시 소상공인협회(회장 한광운, 직전회장 홍규철) 회원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창수 새마을 협의회장은 국가가 어수선하고 시민들이 힘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가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새마을 회원들과 소상공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김제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침체되어가는 현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지역에서 잡기와 순환하는 자원들을 이용하여 김제지역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광운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장은 “한사람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생각들을 발굴하고 다 같이 나아가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 같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만들어 위축되어가는 김제소상공인들의 힘이 될수 있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교육청 제7기 학생기자단, 공식 활동 마무리

전북도교육청 제7기 학생기자단이 활동보고회와 함께 2016년도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학생기자단은 22일 오후 도교육청 북부대 정검다리아에서 학생기자단, 학부모, 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는 andante(느리게), 오늘은 allegretto(조금 빠르게)’라는 주제로 활동보고회를 열고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활동보고회는 ▲제7기 학생기자단 활동 알아보기 ▲올해의 학생 기자상 시상 ▲날말 퍼즐, 우리 같이 풀어보자 ▲교육감과 포토타임 등으로 진행돼 한해 동안 수고한 학생 기자들을 치하했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유·초·중등 신규교사 265명에 임명장 수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2일 오전 강당에서 올해 3월 1일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265명(유치원 28명, 초등 38명, 중등 19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는 신규교사 265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내달 1일부터 도내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신규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이날 수여식은 신규교사들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원으로 출발하는 자리에 가족들을 초대하여 새 출발을 축하해 주는 감동의 장과 아울러 새내기 교사에게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축하영상편지와 축하 공연을 준비, 축제의 장이 됐다. /정해은 기자

### 결론

▲임석우(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차남)군·김진아(김경백씨 정녀)양= 일시: 25일(토) 오후 1시, 장소: 더케이웨딩홀(전주시 서신동 교직원 공제회관 4층)

###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부안경찰 방문 치안현장 간담회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22일 부안경찰서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현 청장은 이날 경찰서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역치안 현안문제 의견 등을 나누었다. 이어 조청장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소식지 제작 배포 등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식도치안센터 서영춘경위 등 업무 유공 경찰관 2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분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암 목지 경찰관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희현 청장은 “묵묵히 일하는 동료가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든든한 생활 치안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경찰, ‘안전협력팀’ 출범 따른 인사발령 신고식

무주경찰서(서장 내영민)는 22일 각 과장 및 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발령 신고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발령은 지역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안전협력팀’ 출범에 따라 정승준(안전협력팀장) 외 경찰관 11명의 보직이동이 있었다. 이날 내영민 서장은 새롭게 꾸려진 안전협력팀은 향후 유관기관 및 주민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범죄환경을 개선하고 현장근무를 지원 하는 등 무주 지역치안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제경찰, 자살기도자 구조 공덕파출소 경찰관에 표창장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2일 자살기도자를 신속한 출동으로 구조한 공덕파출소 박정현 경위와 이혜창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황대규 서장은 공덕파출소를 방문하여 두 유공경찰관에게 전북지방경찰청 장려장과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공로를 치하했다. 박 경위와 이 경위는 지난 17일 새벽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핸드폰은 꺼져 있으며 최종 위치 추적 결과 공덕면 소재 기지국으로 확인된다는 익산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기지국 주변에 대한 신속한 수색으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하던 B모씨를 발견 가족에 인계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게이트볼 게임 도중 쓰러진 80대 노인 심폐소생술로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우주)는 지난 21일 무주군 적삼체육관에서 게이트볼 게임 중 김모씨(84)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심장마비로 생사의 기로에 선 귀중한 생명을 전문적인 심폐소생술로 한 사람에게 생명을 구조해 회개가 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무주안전센터 구급대원(소방교 강창우, 소방사 박현정)에 의하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쓰러진 환자 김모씨를 AED모니터링 확인해 보니 심실세동 상태로 관망돼 신속하게 CPR과 제세동 등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실이 밝혀져 무주군에 큰 화제이다. 현재 환자는 의식이 회복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중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6	진안지사 433-3064
호지지사 010-8845-9835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36-3787
	군신지사 445-015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신지사 86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